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6년 11월 27일(주일) 제1125호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3,327명 참석, 73명 영접, 264명 긍정 답변
(일본인 2,671명)
오사카 교계와 시민들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

러브소나타 오사카에서 73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264명이 교회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2일과 23일 오사카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러브소나타 오사카에는 3,327명(일본인 2,671명)이 참석했다. 행사 시작 두 시간 전부터 줄을 설 정도로 성황이었다.

‘일어나라 오사카, 빛을 발하라’를 주제로 막 오른 러브소나타 오사카는 오사카 교계는 물론 시민들에게

한줄기 희망을 선물했다. 집회에 참석한 일본인들은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며 행사가 끝나도 쉽게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22일에는 교회세미나가 열렸다. 오사카 교계 목회자들과 리더십 253명이 참석했다. 박종길 목사(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 김하중 장로(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라), 이기복 교수(가정사역과 자녀양육)가 강의했다. 같은 날 저녁에는 러브소나

타 전야제인 가스펠나이트가 개최되었다. 오사카 현지 찬양팀과 신학생들로 구성된 합동과이어와 키즈댄스팀이 흥겨운 찬양과 율동으로 행사장을 뜨겁게 달궜다. 가스펠나이트에서 메시지를 전한 오타 유사쿠 목사(간사이성서학원장)는 “일본에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너무 부족하다”면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당당히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했다.

23일 오후에는 웨라톤미야코호텔에서 CEO포럼이 진행됐다. 한국과 일본의 리더십 260명이 교체하고, 비전을 나눴다. 이남식 장로(CCF 회장)를 비롯해 당회서기 정과중 장로, 김수광 장로(이화디아아몬드), 이철 장로(하나로의료재단), 쓰루호 요스케 장관(내각부특명담당대신), 카시와기 테츠오 이사장(요도가와기독교병원장), 오카모토 요리코 선수(태권도 前일본국가대표) 등이 참석했다. 쓰루호 요스케 장관은 “이재훈 목사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다”면서 “이런 자리가 더 많아져서 한일 양국 사이가 더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저녁 열린 러브소나타 오사카 집회는 박진아 작가의 샌드 애니메이션, 송솔나무(플루트 연주자), 온누리위십과이어, 소프라노 김영미, 이재훈 목사 메시지, 테너 배재철, 결신 및 세리모니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훈 목사는 ‘당신은 누구입니까?’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이 목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데,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정체성을 깨닫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고 축복했다.

〈관련기사 8-9면〉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내일, 맞춤형전도집회 ‘버킷리스트’

오후 7시 서빙고 본당, 이재훈 목사 메시지

50대 동기동창들을 위한 맞춤형전도 집회 ‘버킷리스트’가 드디어 내일 막 오른다. 전도대상자 모집 광고가 나가자마자 신청문의가 쇄도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아왔다. 집회 준비는 이미 끝났다. 이제는 뜨겁게 기도하는 일만 남았다. 지난 11월 7

일과 14일에는 요청자 기도모임이 있었다.

50대 동기동창들을 위한 맞춤형전도 집회 ‘버킷리스트’는 저녁식사, 공연, 이재훈 담임목사의 메시지, 결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가수 윤형주, 방송인 이성미, 배우 강석우, 브라스

밴드 브라스통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전도대상자를 대상으로 12월 중에 세례 교육 및 세례식이 거행될 예정이다.

버킷리스트는 일생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을 적은 목록이라는 뜻이다. 한평생 소중한 인연을 이어온 친구들에게 예수님 전하는 일을 버킷리스트에 쓰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오늘, 노숙인을 위한 자선음악회

오후 5시 대한성공회 서울 주교좌교회

노숙인을 위한 자선음악회가 오늘(27일) 오후 5시 대한성공회 서울 주교좌교회에서 개최된다. 산마루교회가 주최하는 이번 자선음악회는 노숙인을 위한 목욕과 빨래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선음악회에서는 노숙인 15명으로 구성된

해맞이찬양대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노래할 예정이다. 입장료는 1만원.

온누리교회는 올해 1월 산마루교회에 비전헌금 1억5천여만 원을 전달하는 등 노숙인 섬김 사역에 동역하고 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목상하는 목수를 찾아서 7

69세, 새로운 일터를 찾은 권영석 장로

“나이 들어도 열정은 식지 않는다”

목상하는 목수를 만났다. 일터에서도 성공적으로 일하고, 신앙생활도 열심인 진짜 목상하는 목수 말이다. 과연 그들은 일터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고, 전장터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궁금했다. 이번에 만난 목상하는 목수는 끊임없이 새로운 일터를 찾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는 권영석 장로(남양주 온누리교회)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나이 들어도 열정만큼은 청춘이다. 아니 청춘보다 더 뜨겁다. 권영석 장로를 두고 하는 말이다. 권 장로는 은행원, 중고등학교 교사, 주간신문사, 출판사, 인쇄소, 출소자 쉼터 운영까지 참 많은 일을 했다. 물론 지금도 하고 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바보행진이 써졌다.

강원도 시골에서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써 중학교를 마치고 혼자의 힘으로 서울로 올라온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하며 먹고 살기 위해 신문배달, 가정교사, 공사현장, 식당에서 일한 적도 있다. 참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일은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에게 교회사역과 세상에서의 일은 다르지 않다. 교회 안의 사역과 밖의 세상일과 구분이 없는 것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 3:23)를 마음에 새겼다. 일이 주어지면 묵묵히 해내고, 또 다른 일이 주어지면 그 또한 묵묵히 해냈다. 지금은 출판 인쇄업체인 고려문화사와 고려출판사, 기독교원 하늘양식을 운영하고 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푹 빠져 살다 보니 어느덧 69세가 되었다. 조금 쉴 법도 한데 그는 멈추지 않는다. 또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얼마 전에는 출소자들을 섬기는 ‘아가페센터’를 개원했다.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살아온 권 장로는 존경스러웠다. 사명완수를 위하여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도 달리고 있는 그의 신앙을 본받고 싶었다. 그는 진정 세상의 빛과 소금이였다.

하나님의 뜻 세우는 일에 귀천 없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일이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발전시키고, 문명과 문화를 일으켜 아름답게 가꾸는 사명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그저 열심히 살아왔을 뿐입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20대 중반을 넘기며 가나안농군학교에서 의식개혁 훈련을 받고 세상적 명예와 야망을 버리고 생활 현장으로 뛰어 들었다. 그 후 십여 년간 월급 받는 직장인으로 일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을 내

려났다.

“40세가 되면 꼭 나만의 일을 해보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처자식이 있었지만, 나만의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손수레에 과일을 싣고 다니더라도 행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굿길 일은 없다라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자신만의 일을 찾았다. 인쇄출판업이 떠올랐다. 초등학교 시절 시골 교회에서 등사판으로 주보를 만들 때가 참 행복했던 기억이 떠오른 것이다. 등사원지(stencil paper)에 한 뼉, 한 뼉 새긴 주보를 만들면 그렇게 뿌듯하고 좋았다. 그 행복했던 기억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지 만드는 일로 이어졌다. 대학시절에도 학보사 편집을 했다. 지나온 삶을 돌아켜 봤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달란트는 인쇄출판 관련 일이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인쇄였으니 그에게 인쇄출판업만한 일은 없었다. 그렇게 1986년 3평의 공간을 얻어 인쇄출판업을 시작했다.

“책을 만들고 각종 지식을 담은 홍보물을 만들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 세상 속에 널리 홍보하는 일이 일종의 문서선교이며 하나님의 사역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양심과 신앙은 지키고

자신 있게 시작한 인쇄출판업이 기대만큼 크게 성장하지 않았다. 그가 세상에 로비와 접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오더를 받고 계약을 따내러 열심히 다녔습니다. 골프도 치고, 낚시도 가고, 고스톱도 치고 거래처 비위 맞추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새벽에 거래처 임원들과 골프를 치러가서 오후 2시에 배를 드리는데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예배드리는 것조차 부끄럽더라고요.”

그때부터 접대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남지 않은 값이 싼 인쇄만 하면서 근근이 사업을 유지했다. 그러다 IMF가 터졌다. 인쇄출판업계가 휘청거렸다. 그런데 그가 운영하는 고려문화사와 고려출판사는 승승장구하기 시작했다. 기업들이 재정을 아끼려고 값

싼 인쇄만 하던 그에게 일을 몰아주기 시작한 것. 그 덕분에 모두가 힘들어하던 IMF시절 그의 회사는 성장했다. 아무리 힘들어도 신앙과 양심을 지킨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독교 서적을 출판하는 ‘기독교원 하늘양식’을 세웠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기독교 전문서적 출판사를 만들었습니다. 미자립교회에서 원고를 보내주면 무료로 주보를 만들어주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서적 출판사를 열었더니 다양한 문의가 들어왔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책들도 있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닌데,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원고들이 많더라고요. 아무 책이나 막 찍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학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신학공부가 그에게 또 하나의 선물을 줬다. 목회석사(M. Div) 과정을 마치고 이어서 선교학 박사 과정을 하면서 인쇄출판업이 자연스럽게 문서선교의 도구가 됐다. 2007년부터는 창조론을 담은 생물교과서 발간에 힘쓰기도 했다.

신앙성장도, 사업체를 돌보는 일도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았다. 2009년 납세자의 날에는 모범납세자로 기획재정부장관표창도 받았다.

새로운 일터 ‘아가페센터’

2014년, 사역자를 찾는 교회의 요청에 따라 교도소 수용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새사람 사역팀에 동참하게 됐다. 그에게 인쇄출판과 문서사역을 넘어서 또 다른 사역을 주셨다.

“새사람사역팀에서 전국의 교도소, 구치소와 소년원 등 13곳에서 일대일 제자양육, 큐티, 성경세미나를 하면서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며,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음 안에서 새사람이 된 담장 안의 수용자들과 형기를 마치고 담장 밖으로 나온 출소자들을 참 많이 봤다. 그러면서 교도소 선교사역에 더 매진했다. 소정의 전문교육을 수료하고 법무부에서 인정하는 교회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 교정위원도 됐다. 권 장로는 현재 새사람사역팀을 담당하고 있다.

“교도소 담장 안 사역은 밖으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사역내용도 유출되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 하루를 모두 바치는 전일제 사역이라 사역자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새사람사역은 물 떠온 하인들만 아는 사역입니다. 앞으로 많은 동역자들이 일대일 제자양육, 큐티, 멘토링, 성경세미나 인도 등 교도소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담장 안 사역을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형기를 마쳐거나 가석방 된 출소자 10명 중 5-6명은 오갈 곳이 없었다. 담장 안에서 성장시킨 신앙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다. 지난해부터 뜻이 맞는 교도소 사역의 동역자들과 함께 출소자쉼터를 계획하고 준비했다. 조금 모아둔 노후자금까지 탈탈 털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면 잘 생각해봐라요. 만류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위험하기도 하지만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사역 때문에 아내와도 많이 다투었습니다. 그럴수록 더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마저 그들을 외면하면 누가 그들을 돌보아 주겠습니까. 옥에 갇힌 자를 돌보라는 예수님, 혈루증 여인을 팔로 입안하고 고쳐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저를 부르실 때까지 감당할 사명과 달려갈 일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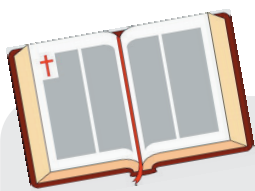
11월 19일, 아가페센터 개원예배를 드렸다. 아가페센터에서는 출소자들이 6개월 동안 무료로 숙식하며 자립을 준비하고, 신앙훈련을 받게 된다. 권 장로는 출소자들에게 기도와 후원이 필요하며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출소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돌봄과 기도입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아가페센터는 오로지 후원을 통해서 운영됩니다. 종이컵 한 줄, 김치 한 통이라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문의: 031-754-3927

후원: 110-466-212797(신한은행)

이 시대 요셉을 추천 받습니다
문의: 02-3215-3196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빌립보서 4:1~9

“어떤 갈등이라도 관용으로 변화시키고,
염려를 감사로 변화시킬 때 평강이 임합니다.”

오늘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우리 영혼이 바로 서는 것을 경험하는 주일입니다. 로마서 1장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문제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과 같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롬 1:21).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 직후에 감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영혼의 대표적인 문제가 감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생각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릴 때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지므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문제와 필요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입니다.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믿음이 없으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믿음은 무너질 뿐만 아니라 부패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누가복음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께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믿음으로 나온 그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명밖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구할 때도 간절해야 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임한 이후에는 감사가 간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움을 구할 때는 간절한데 도움이 임한 이후 감사는 간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륨 10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면 감사도 볼륨 10이 되어야 하는데 1/10 밖에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감사하는 믿음, 건강한 공동체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도 바울을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믿음은 문제해결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도 아닙니다.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처음 빌립보에 갔을 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빌립보 감옥이 열렸습니다. 저녁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감옥 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에서는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더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의 기쁨이 더 충만한 곳은 기적이 나타난 빌립보 감옥이 아니라 아무런 기적이 없었던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4절).

사도 바울은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두 가지 요소를 지적하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권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두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첫 번째 요소는 갈등입니다.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고 순두게에게 간청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2절).

여러 사람이 보는 편지에 이름을 기록한 것 자체가 책망이요, 부끄러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문제를 가볍게 넘길 수도 있지만 작은 갈등의 불꽃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섬세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갈등이 전혀 없는 곳이 아닙니다.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해 가는 곳입니다. 스캇 팩이라는 미국의 정신학자는 저서<다른 북(Different Drum)>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를 것을 좋아하면서 아무런 고통 없이, 아무런 희생 없이 그리스도의 몸이 저절로 되는 줄 착각합니다.”

헌신이 요구되고, 희생이 요구되고, 때로는 뼈를 깎는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해야만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것이지 공동체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공동체의 특성 중 하나는 은혜롭게 싸울 수 있는 것이다.”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포용하는 것은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것이어야지 성도수를 늘리기 위한 포용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헌신, 참여,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긴장을 창조적으로 끌어안은 관용

갈등에 대한 해결책은 관용입니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5절).

관용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잘못에 대한 너그러운 태도입니다. 어떤 잘못에 대해서 너그럽게 볼 수도 있고 엄격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을 쓴 미로슬라브 볼프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용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진리가 있을 수 없고, 진리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포용이 있을 수 없다.”

어떤 갈등 상황에서 정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의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포용에 대한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용은 자신과 다른 것, 다를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반대와 관련된 것입니다. 저는 이 관용을 ‘갈등을 창조적으로 끌어안은 것’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갈등을 창조적으로 끌어안습니다.

미국의 사회운동가 파커 팔머가 쓴 <비통한 자를 위한 정치학>에는 깊은 기독교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파커 팔머는 긴장과 갈등을 창조적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은 마음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긴장과 갈등을 창조적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이 치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원칙은 서로에 대하여 자유롭게 반대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반대가 용인되지 않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닙니다. 관계가 끊어질까 봐 두려워서 마음은 아니지만 겉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없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겉으로는 “예”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아니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면 공동체 안에 갈등과 긴장이 유발됩니다. 그렇지만 그 긴장을 관용하며 끌어안을 수 있어야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는 포용과 관용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해서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서로가 자유롭게 다른 생각을 표시하지만 그것이 갈등과 긴장을 넘어서 분열과 다툼이 되지 않고 창조적인 공동체로 하나 될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잘못된 정치가 지배하는 공동체에서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의 의견은 무조건 찬성이고, 관계가 먼 사람의 의견은 무조건 반대입니다. 무너진 공동체입니다. 긴장과 갈등은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치유됩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반대를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긴장을 창조적으로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품을 수 있는나는 관용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사람에 대한 너그러운 관용도,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해서도 관용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심판자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관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긴장을 창조적으로 끌어안은 관용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염려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두 번째 요소는 염려입니다. 염려에 대한 치료책은 감사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6-7절).

한 기관에서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했습니다.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었고, 30%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일들이었습니다. 12%는 사실이 아닌 가식과 비판이었고, 10%는 악화되어가는 건강이었습니다. 8%가 진짜 앞으로 다가올 문제들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18%정도만이 진짜 염려할 일들이었습니다.

염려는 불신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기도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염려는 포함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염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와 공존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치료하고, 해독하는 영적인 치료약은 감사입니다. 거룩한 연금술이 필요합니다. 감사가 염려를 치료합니다. 염려가 떠오를 때마다 감사로 바꿔야 합니다. 염려와 감사는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생겼는가’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감사는 문제가 생긴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 없이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가 감사입니다. <13면에 계속>

We're
The
Onnuri기획_국내 10개 캠퍼스순방
6 강동 온누리교회

본지에서는 예수바보행전을 써내려가고 있는 국내 10개 캠퍼스를 순방하고 있다. 어떤 성도들이 어떤 모양으로 신앙 생활 하고 있고, 지역사회와 교계에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여섯 번째 주인공은 2008년 2월 24일 창립한 강동 온누리교회다. 성도 1천2백 명이 예배드리고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십자가가 되어 사랑하는 ‘강동 온누리’

젊고, 역동적이고, 지역사회에 본이 되는 바로 그 교회
함께 기도하고, 말씀 따라 더 아끼고, 더 사랑하는 사람들

강동 온누리교회의 시작은 파송이었다.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는 것’으로 시작된 교회가 바로 강동 온누리교회다. 프라미스공동체가 전신이다. 프라미스는 양재 온누리교회 여호수아 공동체 소속 청년들이 청년들을 일깨우고,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2007년 12월 발족한 공동체다. 건국대학교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강동 온누리교회의 모태가 되었다.

프라미스공동체가 탄생한 2007년은 평양대 부흥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 당시 한국 교계는 대한민국 기독교의 재부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 온누리교회는 대학캠퍼스의 부흥과 지역사회에 평화를 심는 역할을 하고자 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공동체가 프라미스이고, 예배처소는 건국대학교였다. 당시 프라미스공동체의 주요 사역은 맞춤전도였다. 탈북민을 위한 맞춤전도집회 등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집회를 여러 차례 개최했다. 지역교계와 지역사회에 신선한 충격과 도전을 줬다.

장갑보다 따뜻한 교회

2008년 2월 24일, 대학청년공동체가 주축이 되어 젊은 바로 그 교회가 문을 열었다. 건대 온누리교회다. 온누리교회 아홉 번째 캠퍼스 교회다. 프라미스공동체에서뿐만 아니라 서빙고와 양재를 비롯한 타 캠퍼스에서도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 건국대학교 교직원들도 함께 예배를 드렸다. 청년들에 이어 성인들도 합류하면서 사역의 범위가 넓어졌다. 대학캠퍼스를 넘어서 강북과 강동 지역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로 성장했다.

건대 온누리교회가 2010년 10월 3일 강동구 천호동 로데오거리로 터를 옮기면서 ‘강동 온누리교회’로 이름을 바꿨다. 건대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파송받은 강동 공동체 성도들이 또 하나의 교회를 만들었다.

이때부터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로 새롭게 자리를 잡아갔다.

강동 지역에서 지역사회를 가장 잘 섬기는 교회를 꼽으라고 하면 강동 온누리교회의 이름이 빠지지 않고 있다. 강동 온누리교회가 위치해 있는 나비쇼핑몰 상인들과 천호 로데오거리 주변 상인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 강동 온누리교회 하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역동적으로 예수님의 문화를 심는 교회라는 이미지를 구축했다.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교회, 지역사회에 꿈과 희망을 주는 교회로 자리매김하려고 도전하고 있다.

강동 온누리교회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장갑보다 따뜻한 교회다. 천호3동 독거노인들을 위해 김장김치 1,000포기를 담갔고, 전기료나 도시가스비를 내지 못해 한겨울에 차단될 위험이 있는 가정을 후원하고 있다. 조손가정에 연탄을 배달해주고, 장판을 교체하는 일도 하고 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에는 이웃들을 찾아가 쌀과 생필품을 나눠주고 있다.

세대와 세대, 교회와 세상 잇는 ‘대학청년부’

강동 온누리교회의 모태가 되었던 대학청년부는 여전히 뜨겁고 역동적이다. 강동 대학청년부는 프라미스공동체(청년부)와 프라미스U 공동체(대학부)로 구성되어 있다. 강동 대학청년부는 세대와 세대, 세상과 교회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본래 청년공동체와 성인공동체의 교류가 활발했지만 최근에는 그 교류가 더욱 활발해졌다. 대학청년부의 역동적인 에너지가 성인공동체로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다. 강동 온누리교회에서는 대학청년부와 성인공동체가 연합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대학청년부와 성인공동체가 연합해서 이웃리치를 가기도 한다. 주일 3부 예배에서도 청년들과 성인들의 연합을 볼 수 있다. 강동 온누리교회 주일 3부 예배는 청년들을 위

한 예배다. 이 예배에 많은 성인공동체 성도들이 참석해서 청년들과 교제하고 있다. 새벽기도회와 대학청년부 기도모임은 청년들과 성인들이 영적으로 교류하는 연장선이다. 매주 금요일 열리는 대학청년부기도회에 한 달에 한 번씩은 성인공동체 성도들이 참석하고 있다.

프라미스공동체가 성인공동체와 끈끈하게 연합했다면 프라미스U 공동체는 차세대와 연합되어 있다. 프라미스U 공동체 소속 청년들 중에는 유독 차세대 교사가 많다. 그들이 차세대일 때 프라미스U 공동체 소속 교사들로부터 받은 사랑과 돌봄을 잊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받은 사랑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고자 헌신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강동 온누리교회는 차세대부터 성인공동체까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 중심에 대학청년부가 있다. 강동 대학청년부의 역할은 이게 다가 아니다. 세상과 교회를 잇는 역할도 하고 있다. 오는 12월 3일부터 3주 동안 강동 지역 청년창업자들을 위한 ‘다니엘 캠프’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니엘 캠프는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전문가들로부터 교육과 조언을 듣고, 창업역량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창업을 꿈꾸거나 준비 중인 청년들이 벌써부터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이처럼 교회와 세상을 잇는 역할에도 대학청년부가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젊은 부부를 위한 젊은 교회

강동 온누리교회에는 유독 젊은 부부들이 많다. 바로 그 젊은 부부들이 교회에 얼마나 잘 정착하느냐에 따라 교회의 내일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젊은 부부들이 많으면 교회와 공동체 분위기가 역동적으로 바뀐다. 강동 온누리교회의 시작부터 함께했던 청년들은 이제 젊은 부부가 되었다. 그래서 젊은 부부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비결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젊은 부부들에게 꼭 필요한 양육 프로그램도 다수 운영하고 있다. 젊은

교회답게 젊은 성도들을 섬기는 탁월한 재능과 에너지가 있다.

강동 온누리교회는 젊은 부부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개의 젊은 부부 다락방을 운영하고 있다. 같은 또래 성도들이 모여, 비슷한 고민을 나누고, 서로의 신앙에 도전을 주도록 독려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젊은 부부학교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 반응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강동 1기 젊은부부학교는 서빙고의 도움을 받아서 개최했는데 2기부터는 독자적으로 실시할 수 있었다. 강동 1기 젊은부부학교를 수료한 성도들이 스태프가 되었다. 성도들의 관심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이 좋은 프로그램을 더 많은 부부들에게 소개하고 싶어한다. 최근에 3기 젊은부부학교를 마쳤다. 젊은 부부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성도들의 나눔과 교류가 더욱 활발해졌다. 믿지 않는 가정들도 젊은부부학교에 참석했다가 예수를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도 생겼다. 아웃리치, 사역, 순모임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고 있다.

차세대와 여성사역에서도 젊은 부부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다. 차세대에서는 부모가 신앙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유년부와 유아부는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름 캠프에도 부모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강동 온누리교회 차세대는 강동지역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대단하다.

여성사역은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마더 와이즈, 자녀교육 세미나 등을 열어 지역사회 여성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다. 지역사회 여성들이 부담 없이 교회에 찾아오고, 수요여성예배를 드리고, 주일예배까지 드리는 그날을 꿈꾸면서 헌신적으로 섬기고 있다. 수요여성예배에서는 ‘사랑방’이라는 새 가족 그룹을 만들어서 교회가 낯선 여성들이 충분히 적응하고,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여름 아웃리치.



천호3동 독거노인들을 위한 김장 담그기.



강동 사랑부 야외학습.



강동 사랑부 합창단.

돕고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다!

강동 온누리교회가 위치한 나비쇼핑몰 외관에는 교회라는 간판도, 십자가도 없다. 강동 온누리교회를 모르는 지역 주민을 위해 성도 한 명 한 명이 십자가가 되어 지역사회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강동 온누리교회가 자리 잡은 천호동 로데오거리 일대에는 유흥가와 윤락가가 밀집되어 있다.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등 소외된 이웃들도 많다. 강동 온누리교회가 그곳에 터를 잡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다.

강동 온누리교회는 초창기부터 지역사회 섬김에 앞장섰다. '48M사역'이 그 대표적인 사역이다. 48M사역은 '48만 강동구 주민을 섬기

는 기적'이라는 뜻이다. 독거노인들을 찾아가 반찬을 나눠주고 교제하고, 둔촌고 등하교 길에 벽화를 그리고, 나비쇼핑몰 활성화를 위한 패션쇼와 다문화가정을 섬기는 사역을 진행했다. 최근에는 쌀 배달, 소리마을 양로원 섬김, 몽골국제학교 급식지원, 로데오거리 전도, 나비쇼핑몰 성경공부, 천호동공원 무료급식 섬김에 집중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본본본'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본본본 캠페인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예수님만을 본받는 공동체를 이루고, 지역사회에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바보행진' 비전의 실천운동이다. 한마디로 지역사회에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본(本)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강동 온누리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QT를 강조하고 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강동구에 전할 예

수의 사랑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오늘도 참 행복한 '강동 사랑부'

강동 온누리교회 사랑부도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아낌없이 주고 있다. 매주 토요스쿨을 열고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토요스쿨에는 만지 않는 발달장애인들이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강동 사랑부 합창단이 제1회 정기연주회 '동쪽하늘 무지개'를 개최했다. 발달장애인들이 정기연주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발달장애인과 부모 450여명이 참석했다. 강동 사랑부의 공연을 본 발달장애인들과 그 부모들이 큰 위로를 받았다.

강동 사랑부 합창단원들의 마음에 찬양과 말씀이 가득 채워지면서 몸과 마음이 변화된 것도 큰 은혜다. 강동 사랑부 정권일 형제는 학교

폭력 때문에 생긴 과호흡 증후군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다. 과호흡 증후군 때문에 곧잘 쓰러졌는데 합창단을 하면서 집중력이 좋아지고, 과호흡 증후군이 현저히 줄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찬양이라는 은사를 발견하고 꿈이 생긴 것이다. 정권일 형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랑부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 날마다 찬양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사랑부 무지개도 준비 중이다. 강동 사랑부가 성장하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원동력은 부모와 교사들의 헌신적인 섬김이다. 매주 4명의 교사가 강동 사랑부를 섬기기 위해 인천에서 발걸음을 한다. 과거에 프라미스공동체에 출석하던 청년들인데 사랑부에 교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걸음에 달려왔다. 이러한 헌신과 열정적인 성도들 덕분에 강동 온누리교회 사랑부는 오늘도 참 행복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노치형 목사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동행하리라!”

강동 온누리교회 부임을 준비할 때, 여호수아 말씀 QT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강동 온누리교회는 '파송으로 이어져온 교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파송 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청년들은 파송 받아 프라미스공동체를 꾸렸고, 성인공동체 역시 파송 받아 강동 온누리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해 온 강동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늘 함께하셨기에 지금의 강동 온누리교회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강동 온누리교회 성도 모두에게는 '개척자의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해주셨고, 자랑스러워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강동 온누리교회 성도 각자가 경험했던 모든 고통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여 하나님께서 강동 온누리교회에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찾아 나가기 할 때입니다. 차세대, 대학청년, 성인공동체, 사랑부, 여성사역, 강동 시니어 아카데미 어르신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믿어주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서로를 아끼고, 격려한 것보다 더 아끼고,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대 간의 연합, 지역과의 하나 됨을 통해 강동 온누리교회는 젊고 역동적인 교회로 재도약 할 것입니다.

2018년이면 강동 온누리교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는 거룩한 발걸음에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섬기는 사람들

노치형 담당목사
권용갑 목사
오은규 목사

석승호 목사
윤석원 목사

나는 이래서 강동 온누리교회가 좋아요!

어떠한 일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저력과 기동력이 있습니다. / 이무웅 장로

영적인 부흥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성도간의 협력의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나상문 장로

성도들이 사랑이 많기 때문입니다. 강동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적인 기준을 뛰어 넘어 몸과 마음으로 섬겨주십니다. 그 모습 참 예쁩니다. / 허영남 장로

같이하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주 교회에서 만나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 정운탁 집사

따로따로 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동에서는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 / 신새아 자매

좋은 형, 누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도 만나 일상적인 나눔을 많이 할 수 있어 좋습니다. / 김주한 형제

“엔젤트리(Angel tree)
후원자를 찾습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27일)부터 10개 캠퍼스에 사연게시판 설치

사회선교부에서 엔젤트리(Angel tree) 후원자를 찾는다. 엔젤트리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성탄 선물을 전달하는 행사다. 이번 달 20일까지 각 다락방별로 어려운 이웃들의 사연을 접수 받았다. 접수된 사연은 오늘(27일)부터 서빙고와 양재를 비롯한 국내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 본당과 로비에 설치되는 사연게시판에 게시된다.

엔젤트리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더 따뜻한 관심을 갖고, 찾아가는 기회를 만들고자 지난해부터 시작했다. 평소 이웃들을 돕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성도들에게 더 없이 좋은 기회다. 지난해에는 총 2,200명의 이웃들이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보낸 선물을 받았다. 불치병 환자들을 비롯해 독거노인, 새터민, 재소자 등이 그 주인공이었다. / 편집자 주

들 형제에게 두터운 오리털 외투를 선물로 보내주었다. 지체장애인 딸을 돌보는 86세 할머니가 계셨는데 한 순간도 미소를 잃지 않으셨다. 딸을 위해 더 열심히 살고 있는 그 할머니께는 방한 부츠를 선물해 드렸다. 한국으로 시집 온 베트남 자매는 임신한 상태에서 이혼을 당했다. 베트남 식당에서 일하면서 근근이 생활하고 있었다. 겨울이 없는 나라에서 온 그녀에게는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 줄 여성용 파카를 선물로 보냈다. 한 재소자가 선물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수감생활 중인 자신을 대신해 시부모를 잘 봉양하고, 아들을 훌륭하게 잘 키워준 아내가 너무 고마웠기 때문이다. 그 남편의

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웃들에게 전해지는 법이다. 따라서 하나님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증명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동안 우리는 경건의 의미를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절제하며,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그러나 진짜 경건의 의미는 폭이 더 넓다. 야고보 장로는 참된 경건이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라고 했다(약 1:27). 경건이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말씀이 삶으로 실천되는 것이 경건이다. 경건한 삶에는 이웃 사랑이 반드시 포함된다. 예수님은 이웃사랑을 보다 실천적으로 해석하셨다. 배고픈 이웃에게 쌀 한 포대 주는 것, 목마른 이웃에게 생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선물에는 아내의 환갑을 기념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었다. 탈북민 B자매는 중국에서 아이를 낳고 살다가 어렵게 한국에 왔다. 살길이 막막한 그녀를 응원하기 위해 따뜻한 신발을 선물로 보냈다. 이 외에도 엔젤트리와 관련된 훈훈한 이야기가 무궁무진하다. 엔젤트리는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소망이 되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사랑하지 않으신다. 이방인도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지 않았다. 이방인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죄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 이방인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만 사랑하지 않으신다. 믿지 않는 자들도 사랑하신다. 그렇기에 교회는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위해서도 존재해야 한다. 교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이웃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모두를 포함한다. 성경은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고아와 같이 홀로된 자들과 나그네와 같은 탈북자, 외국인 노동자, 난민, 다문화가정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하나님의 특별 관심대상이라는 것을 천명하셨다(출 22:21-27).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

수 한 병 주는 것, 춥게 생활하는 이웃에게 입을 옷이나 따뜻한 신발 한 켤레 사 주는 것이 곧 나에게 준 것이라고 하셨다. 홀로 살아가기 힘든 이웃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마 25:31~46).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했다. 그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그네를 힘써 대접할 것을 권하였고(롬 12:13), 디모데에게는 이웃에게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줄 것을 강조하셨다(딤후 6:10).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교회 리더의 요건 중 하나로 지정했다(딤후 3:2, 5:10, 딤후 1:8). 성경에 보면 나그네를 대접했다가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도 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했다가 천사를 대접하였다(창 18:1~8). 리브가는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 대접했다가 이사를 남편으로 맞이하는 복을 받았다(창 24).

엔젤트리는 교회의 담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퍼트리는 이웃사랑 운동이다. 무엇보다 우리가 경건한 신앙인이 되게 하는 영성운동인 동시에 믿음의 행위다. 금년 성탄절에도 엔젤트리의 주인공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엔젤트리에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것을 기대해본다.



이기훈 목사
(사회선교본부장)

엔젤트리 이렇게 참여하세요!

첫째, 사연게시판에 비치된 사연을 한 장 꺼내서 읽는다.
둘째, 후원자 카드에 이름과 연락처, 사연번호를 기록하고 엔젤함에 넣는다.
셋째, 천사그림 카드를 엔젤트리에 달아준다.
넷째, 엔젤트리 담당자로부터 선물 보낼 곳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수신한다.
다섯째, 사연카드에 기재된 선물을 5만원 이내로 구입하여 일주일 안에 발송한다.
여섯째, 엔젤트리폰으로 '사연번호와 함께 발송 완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문의: 02-3215-3355, 엔젤트리폰 010-7368-9101

울해도 성탄절을 앞두고 엔젤트리 행사가 실시된다. 엔젤트리는 미국에서 유래되었다. 1972년 미국 알라바마주에서 ‘Mary Kay Beard’라는 여성이 은행 강도죄로 교도소에 들어갔다. 그녀가 수감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한 가지 광경을 목격한다. 그 지역 교회들이 수감자들에게 성탄 선물을 주면 수감자들이 그 선물을 다시 자녀들에게 보내는 광경이었다. 그녀는 출소 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 일을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엔젤트리의 시작이다. 10년 후 Chuck Colson이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 투옥되었다. 그때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 하나님을 만났다. 회심한 그는 출소한 뒤 ‘Prison Fellowship’s Programs’을 만들었다. 엔젤트리는 그 사역 중 하나로 1982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지금도 미국의 크리스천들은 성탄절마다 재소자 자녀들에게 부모의 이름으로 작은 선물을 전해주고 있다.

온누리교회는 작년부터 엔젤트리를 시작했다. 교도소 재소자는 물론 공동체 안과 밖의 이웃들이 대상이다. 지난해에는 약 2,200명의 이웃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나누어 주었다.

첫 해부터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넘쳐난다.

훈훈한 이야기 그리고 감동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태어난 한 청년이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32년 동안 어머니의 간호를 받으며 누워서 생활하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마비된 몸에 욕창이 생겨 고통이 배가 되었다. 엔젤트리를 통해 이 사연을 읽은 온누리교회 한 성도가 이 형제에게 성인용 기저귀를 선물로 보내주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A자매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홀로 생활하고 있었다. 그 자매는 근육무력증을 앓고 있었는데 2년 전 유방암 수술까지 받았다. 암세포가 갈비뼈까지 전이되어 두 개의 갈비뼈를 제거해야 했다. 겨울만 되면 수술부위가 시리고 아픈데 그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다. 한 성도가 그 자매를 위해 따뜻한 조끼를 선물로 보내주었다. 또 근육병을 앓고 있는 중1, 중3 형제는 휠체어를 타고 학교에 다니고 있다. 날씨가 추우면 근육이 더 굳어지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해줄 외투가 절실했다. 한 성도가 이

차세대 친구들에게 들려주는 성경 인물 이야기 6

삼손, 여자에 빠진 일그러진 영웅인가?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선지자 삼손만큼 수많은 이야기거리를 생산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시인 존 밀턴의 ‘투사 삼손’, 카미유 생상의 오페라 ‘삼손과 들릴라’, 세실B.데밀의 ‘삼손과 들릴라’, 램브란트의 ‘삼손의 실명’, 구이노 레니의 ‘삼손의 승리’, 피터 파울 루벤스의 ‘삼손과 들릴라’, 이탈리아 영화 ‘칼과 샌들’ 등 수많은 시인, 화가, 영화감독이 삼손의 이야기에 깊이 매료되어 수많은 작품을 쏟아냈어요. 그뿐인가요? 1910년 미국의 제스 슈와이더라는 사람이 창설한 가방브랜드 ‘샘소나이트’(Samsonite)는 장사(壯士) 삼손을 가장 견고하고 튼튼한 가방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입히는데 성공했어요.

삼손은 세상에서 받는 융성한 대접이 무색할 정도로 한국 교회 내에서 괘시와 천대를 한 몸 에 받고 있어요. 선지자 삼손은 왜 이처럼 한국 교회에서 천덕꾸러기로 전락하였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삼손의 여자문제라는 도덕적 준거 때문이에요. 예로부터 처첩문제나 가정불화 등 여자와 관련된 문제로 상처가 많은 한국 사회에서 강한 반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근육질 바람둥이’, ‘여자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한 머저리’라는 평가와 대조적으로 삼손을 ‘믿음의 용사’로 평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삼손을 기드온, 바락, 입다, 다윗, 사무엘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믿음을 삶 속에서 실체화시켰던 사람이라고 증언해요. 어쩌면 삼손은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 받았던 억울한 평가를 만회하고 싶어할지도 몰라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도덕적 관념을 수정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삼손을 다시 바라봐야 해요.



안톤 반 다이크가 그린 삼손과 들릴라.

첫째, 삼손은 어려운 시대에 홀로 싸우던 용사였어요. 사사 시대에 사사들의 임무가 무엇인가요? 바로 대적하고 싸우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곧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죠. 사사들의 시대마다 대적들이 나오는데, 에훗의 시대에는 모압, 드보라와 바락의 시대에는 가나안, 기드온의 시대에는 미디안이 대적이었죠. 삼손 시대에는 다윗과 골리앗으로 유명한 족속 블레셋이 대적이었죠. 삼손의 사명은 블레셋과 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사사기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애증의 고리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징계로서 대적의 지배, 이스라엘의 회개와 구원자로서 사사를 보내주심, 또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또 하나님의 징계... 사사 시대 말기인 삼손 시대에 이 고리가 끊어지고 말아요. 바로 ‘이스라엘의 회개’라는 고리가 끊어진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과 화친을 맺었어요. 그뿐 아니라 자신들

의 구원자인 삼손을 잡아 그들에게 갖다 바치려고 해요(삿 15:11).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골칫덩이가 아니라, 사사였던 삼손이 방해물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삼손은 이 암울한 시대에 홀로 싸웠던 사람이었어요.

둘째, 삼손의 사역과 이스라엘의 구원의 관계 때문이에요. 삼손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러나 일찍 죽었기 때문에 블레셋으로부터의 구원을 이루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는 분명히 그 구원을 시작한 사람이었어요(삿 13:5). 그리고 블레셋의 압제에 마지막 방점을 찍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에요(삼상 7:13). 삼손과 사무엘은 블레셋의 통치시대에 태어나 함께 활동했던 사사들이었어요. 비록 삼손이 먼저 죽었고, 블레셋으로부터의 압제를 벗어나는 임무가 사무엘에게 넘겨졌지만, 블레셋으로부터의 구원의 시작과 끝은 삼손과 사무엘로 기술되어 있어요.

셋째, 삼손의 마지막 삶은 회복(recovery)으

로 마무리되었어요. 한때 삼손이 들릴라로 인해 시험에 빠졌던 것이 사실이에요. 분명히 악한 일이었어요(삿 16:20). 그러나 그는 잠간의 실패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르칠 위기에 서 다시 사명을 되찾았어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 블레셋과의 싸움의 판도를 바꿔버린 믿음의 용사가 되었어요(삿 16:30).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을 함락시킨 왜장을 끌어안고 남강에 투신해 전공(戰功)을 세웠던 의로운 기생 논개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자신의 민족을 압제한 블레셋의 수많은 적들을 죽이고, 그들과 함께 장렬히 전사한 삼손의 업적을 가리켜 ‘삼손의 왕관’(Samson’s crown)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폭력, 야망, 배반, 복수가 적절히 어우러진 이 범접 스릴러에 주연으로 등장한 근육질 장발 사사 삼손은 여자문제에서만은 엄격한 한국 교회에서 저평가된 인물임이 틀림없어요. 그는 그 시대에 아낌없이 쓰임 받은 위대한 사사였음이 분명해요.

한때 여자문제로 치명적 과오를 범했던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대로 주저앉히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자리에까지 회복시키셨어요. 평생토록 여자 뒤쫓다니만 따라다니다 패가망신한 일그러진 영웅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운 오른팔에 강하게 붙들린 ‘삼손의 왕관’으로 재평가된다면, 하늘에 있는 삼손도 이제는 조금 덜 억울하지 않을까요?

곽상학 목사
(강동 은누리교회)

차준구 장로가 들려주는 분노이야기 3

많은 사람들이 분노가 유발하는 심리적, 육체적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다. 세로토닌 계통의 항우울제를 통한 약물치료나 분노의 뿌리를 찾고 건강한 심리상태를 회복하도록 상담치료를 받는다.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을 단련하는 전두엽 훈련도 받는다. 심리, 건강, 환경에 따라 개인에게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존재한다. 크리스천들에게는 ‘영적치료’를 권하고 싶다. 영적치료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만으로도 분노를 치료할 수 있다. 분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변화되고,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욥의 사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분노가 치유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욥이 재앙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는데 더 큰 고난을 맞았다.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위로하러 와서 그가 겪는 고통과 재난이 죄 때문이라고 정죄했다. 욥은 친구들에게 화가 났다. 친구들의 무자비한 언행과 이웃을 정죄하는 과오를 지적했다(욥 22:23). 이후 엘리후가 욥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

록 중재했고, 욥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과정이었다. 하나님은 욥이 당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에 그 흔한 위로조차 하지 않으셨다. 왜 고통



을 당했는지 설명도 하지 않으셨다. 단지 당신이 창조한 세계의 질서를 보여 줄뿐이었다. 욥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보면서 자신이 비천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다(욥 40:4-5). 욥은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묵상하면서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자

신의 무지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한탄한다(욥 42:2-3). 이렇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각성을 하게 되었다. 바로 이 영적각성이 욥의 마음속에 겸손과 참회를 불러 일으켰다(욥 42:6). 깊은 회개는

그의 영혼을 정화시켰고, 순결하게 만들었다. 비로소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보는 사람이 되었다(욥 42:5). 분노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죽기를 소원했던 욥이 하나님의 의지와 섭리를 깨닫고, 자신을 재와 티끌로 여길 정

도로 겸손해졌다. 겸손해지면서 자신의 분노와 상처를 다시 이해하게 되었다.

크리스천이 분노를 제어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심령이 가난한 성품’으로 변해야 한다. 심령이 가난한 성품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무능력한 사람을 의미한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심령이 가난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자기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된다. 그러면서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분노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시국이 어수선하다. 법은 땅에 떨어지고, 정의는 무너지고, 악인이 득세하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대한민국에 분노가 있을지라도 크리스천들은 하박국과 같이 기도해야 한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차준구 장로
(양지 은누리교회,
송탄정신건강의학과원장)

르포_오사카에 숨겨진 가슴 아픈 신앙 이야기

모진 핍박과 박해도, 설움과 차별도

“오직 신앙의 힘으로...”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친다. 우리나라 부산과 꼭 닮았다. 분명 일본인데 부산에 와있는 착각이 들 정도다. 조용하고, 질서정연한 일본인들의 성향과 조금 다른 것 같다. 아니 분명 달랐다. 택시를 탔다. 기사가 대뜸 “한국 사람이예요? 나는 재일교포예요”란다. 어눌한 한국말이었지만 어쩌나 반기웠는지 모른다. 그렇다. 여기는 일본에서 재일교포가 가장 많이 사는 도시 오사카다. 일본 간사이(교토부, 오사카부, 시가현, 나라현, 효고현, 와카야마현, 미에현을 일컫는 지명) 지역의 핵심도시이자, 일본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다. 풍요롭고, 사람 사는 맛 나는 오사카에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고, 설움과 차별을 당해도 신앙을 지킨 이들의 눈물 나는 이야기가 감춰져 있다.

오사카성 벽재에 새겨진 십자가

오사카는 일본 제2의 도시다. 도쿄, 요코하마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곳이다.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의 약 10%가 오사카에 살고 있을 정도로 국제적인 상업도시이기도 하다. 일본 3대 명성(名城) 중 하나인 오사카성, 연간 천만 명이 찾는 테마파크 ‘유니버설스튜디오재팬(USJ)’, 쇼핑과 식도락가들의 천국 신사이바시와 도톤보리 거리가 유명하다. 1년 365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오사카를 거닐며 예수의 흔적을 찾아 나섰다. 첫 번째 방문지는 오사카성이다. 오사카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곳이다. 오사카를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빼놓지 않고 온다. 오사카성은 혼란한 전국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1583년부터 15년에 걸쳐서 축성했다. 천하통일을 이룬

도요토미를 상징하는 곳이다. 바로 이 오사카성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가 별로 없을 것이다.

도요토미에게 박해받던 크리스천들의 한이 오사카성에 서려 있다. 오사카성이 있는 자리는 본래 혼간지(本願寺)라는 절터였다. 1496년 승려 렌노가 지금의 오사카성 부근에 혼간지라는 큰 절을 세우고 커다란 불교공동체를 만들었다. 1580년, 강대한 세력을 떨치는 불교공동체를 지배하기 위해 오다 노부나가가가 이곳을 공격해 마을과 절터를 불살라 버렸다. 바로 그곳에 도요토미가 성을 쌓았다. 1587년, 도요토미가 가톨릭 신부추방령을 내린 뒤 크리스천에 대한 박해가 본격화되었다. 당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오사카성 축성공사에 강제로 동원되었다. 도요토미 시대보다 기독교 박해가 더 심했던 도쿠가와 막부 시대에는 더 많은 크리스천들이 오사카성 복공사에 동원되었다.

오사카성 천수각 뒤편에 각인석(刻印石) 광장이 있다. 큰 돌덩어리들이 이곳저곳에 널려 있다. 이 석재들은 붕괴된 오사카성 벽재들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문양이 새겨져 있다. 축성공사에 동원된 사무라이들이 새긴 문양들이다. 이 석재들을 살펴보면 십자가 문양이 눈에 띄었다. 찬찬히 봤더니 십자가 문양이 더욱 뚜렷해졌다. 축성공사에 강제동원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십자가를 새겨 놓은 것이다. 극심한 박해도 도저히 하나님을 버릴 수 없었던 그들이 단단한 바위에 십자가를 새기며 신앙을 드러내고, 지켰던 것이다.

오사카성 천수각 유물자료관에서 도요토미와 도쿠가와 정권의 위세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각종 유물과 자료들이 전시돼 있다. 그 중에서 ‘전투도’가 있는데 그 그림을 유심히 살펴보면 십자가 깃발을 든 군대가 보인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 침략의 선봉에 섰던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는 유명

한 크리스천 다이묘(영주)였다. 세스페데스 신부(조선 땅을 밟은 최초의 서양인 신부)를 종군 자격으로 데려와 전란 중에도 예배를 드릴 정도로 독실한 신앙인이었다. 천수각 병풍에 그려진 십자가 깃발을 든 사무라이들은 고니시 유키나가처럼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낸 사람들이다. 참혹한 전투의 현장에서도 십자가를 높이 드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낸 크리스천들이 있었다는 것이 의미 있다.

조선인 여공(女工)들의 눈물과 신앙

다음으로 향한 곳은 기시와다 지역이다. 오사카 시내에서 전철로 약 한 시간가량 떨어져 있는 곳이다. 1900년대 초 이 일대에 서일본 최대 규모의 방직공장 ‘기시와다 방직주식회사’가 있었다. 이곳에 조선인 여공(女工)들의 눈물과 신앙이 숨겨져 있다.

기시와다 방직공장은 ‘조선방직’이라고 불릴 정도로 조선인 여공들이 많았다. 조선에서 끌려온 10대 소녀들이 노예처럼 일했다. 1일 2교대 12시간 노동, 비위생적인 숙소, 조악한 식사 등 혹독한 환경에서 설움을 견뎌야만 했다. 그 열악한 환경에서 조선인 여공들이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다름 아닌 신앙이었다. 그녀들은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야학을 다닐 정도로 배움의 열정을 불태웠다. 공장에 ‘조선하루키교회’를 세워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 1922년 6월 14일자 기독교신보에 따르면, 하루키교회 창립예배를 월요일(5월 1일)에 드렸다고 나와 있다. 왜 일요일이 아닌 월요일에 예배를 드렸을까. 조선인 여공들은 일요일도 없이 노동을 강요받았던 것이다. 그들에게 주어진 휴일이라곤 고작 한 달에 이틀(매월 1일, 15일) 뿐이었다. 금쪽같은 휴일을 주일 삼아 예배를 드리면서 고향에 대한 향수, 나라 잃은 설움을 달랬다.

기시와다시 마츠가제초 10-65번지. 이곳은 방직공장이 있던 곳으로 지금은 하루키중학교가 들어서 있다.

약 100m 가량 이어져 있는 빨

간색 벽돌담이 당시 이곳이 조선인 여공들이 일했던 공장임을 말해주고 있다. 담벼락 높이가 약 2m 정도 된다. 당시에는 이 담 위에 1m 높이의 가시 철선이 세워져 있었다. 감옥과 같은 삼엄한 감시가 있었다. 조선인 여공들이 얼마나 혹독하게 일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지금도 철선을 감았던 지지대가 군데군데 남겨져 있다. 그런데 그 지지대 모양이 십자가다. 약 100년 전, 조선에서 강제로 징용된 어린 소녀들이 자신들을 가두고 있는 담벼락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다.

이름 없는 묘비의 주인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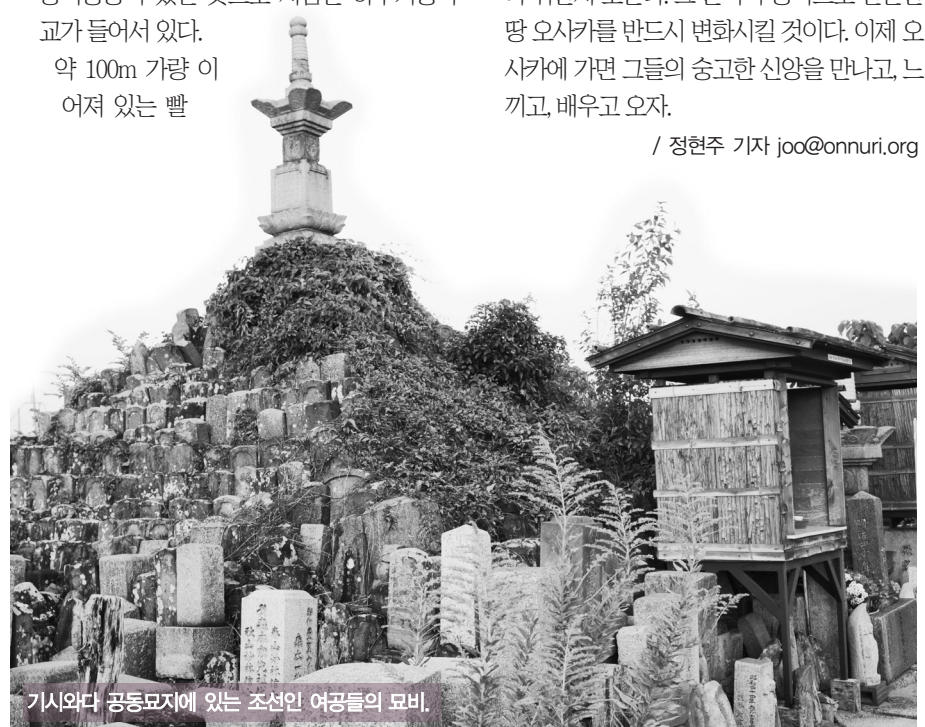
하루키중학교에서 도보 30분 쯤 가면 가미노초니시 27-39번지다. 이곳은 ‘기시와다시 공동묘지’다. 수만 기의 비석들이 즐비한 이곳에 방직공장에서 일하던 조선인 여공들의 묘가 있다. 비위생적이고, 고된 노동 속에서 죽어간 이름 없는 수많은 조선인 여공들이 아무도 찾지 않는 이곳에 잠들어 있다. 초라한 묘비만 남아있다. 이 드넓은 공동묘지에서 그녀들의 무덤을 찾을 수 있을까. 그녀들의 흔적을 찾고 싶었다. 공동묘지 한가운데 무연고나 무명의 묘만 모아놓은 야트막한 동산이 있는데 바로 그곳에 조선인 여공들이 잠들어 있다. 잡초가 무성했다. 세월의 풍파에 깨지고, 글씨가 지워진 비석도 많았다. 싸늘하게 불어오는 바람이 불을 스치는데 그녀들이 떠올라 눈물이 났다. 노예 같은 생활을 하면서, 차별 받고, 힘들게 일만 하다 죽어간 조선인 소녀들의 눈물과 한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묵직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리고 가족과 나라, 꿈과 희망이 없는 곳에서 오직 신앙의 힘으로 참고 견딘 그녀들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오사카에는 가슴 아픈 크리스천들의 역사가 숨어 있다. 기독교 인구가 고작 0.6% 밖에 되지 않는 곳에 서린 크리스천들의 흔적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그 흔적이 영적으로 빈곤한 땅 오사카를 반드시 변화시킬 것이다. 이제 오사카에 가면 그들의 숭고한 신앙을 만나고, 느끼고, 배우고 오자.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십자가 목걸이, 십자표식 투구, 십자가가 그려진 망토를 두른 크리스천 사무라이(오른쪽).



기시와다 공동묘지에 있는 조선인 여공들의 묘비.

오사카에서 만난 사람들

벼랑 끝에서 만난 예수

야쿠자에서 목사로
‘가나자와 야스히로 목사’라쿠고(만담)로 설교하는
‘아다치 다카오 목사’

3,327명(일본인 2,671명)이나 참석한 러브소나타 오사카는 문전성시를 이뤘다. 집회 시작 두 시간 전부터 집회장에 입장하려고 줄을 설 정도였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만큼 사연 있는 참가자들도 눈에 띄었다. 그중에서 야쿠자에서 목사로 변신한 뒤 야쿠자들을 갱생시키고 있는 가나자와 목사와 일본 전통 만담 ‘라쿠고’로 새신자들을 위한 맞춤형 설교를 하고 있는 아다치 목사를 만났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땅딸막한 키, 다부진 체격, 가늘고 찢어진 눈매... 어두운 밤 골목길에서 만나면 피하고 싶은 인상이었다. 가나자와 야스히로 목사(예수교일본세계선교회오사카제자교회)의 첫인상이 그랬다. 그런데 아이처럼 해맑게 웃는 미소를 보고는 참 많이 미안했다. 첫인상을 그리 혹독하게 평가한 것이 말이다.

그는 전직 야쿠자다. 그것도 그들 세계에서 알려질 대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청소년 시절 야쿠자에 몸담은 그는 마약에도 손을 댔다.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나쁜 짓은 거의 다해본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예수 만나고 완전히 변화했다. 지금은 야쿠자들을 갱생시키는 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예수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이 너무 달라서 같은 인물인지 의심이 될 정도다. 그는 일본에서는 귀하디귀한 기독교 집안에서 나고 자랐다. 그것도 신앙의 뿌리가 4대째 이어지고 있는 가문이다. 특히 할머니의 신앙이 독실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에배를 꼭 드릴 정도로 신실했다.

“저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십니까?”

어린 시절에는 교회에 곧잘 다녔는데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방향을 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교회와 완전히 담을 쌓았다. 시너도 흡입하고, 폭주족 생활도 했다. 소년감별소(소년원)에도 들어갔다. 결국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야쿠자의 길로 들어섰다. 매일같이 도박, 술, 여자, 싸움에 미쳐 살았다. 18살이 되던 해 오야붕(두목)에게 ‘잔(杯)’을 받고 정식 조직원이 되었다. 야쿠자 세계에서는 ‘잔(杯)’을 받는 의식을 거쳐야 정식 야쿠자로 인정 해준다고 한다. 그 잔을 준 오야붕(두목)에게 목숨을 바치겠다는 맹세이기도 하다. 정식 야쿠자가 된 그는 100만엔(한화 약 1,100만원 정도)을 들여 문신을 새길 정도로 열심이었다. 푸르고 푸르려야 할 10대에 그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선택했다. 그의 부모가 밤낮으로 기도했지만 소용없었다.

야쿠자로 살면서 매일이 소용돌이였다. 돈을 잃기도 하고,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패싸움을 하다 목숨이 위태로웠던 적도 있다. 그래도 그만둘 수는 없었다. 언제나처럼 조직 활동에 여념이 없었다. 그런 그에게 가혹한 시련이 찾아왔다. 같은 조직의 동료와 싸움이 붙었

는데 동료가 그에게 총을 쏜 것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엄청났다. 총을 맞는 순간 죽음에 대한 공포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체험했다.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얼마나 컸던지 그날 이후 야쿠자 세계를 떠났다. 그러나 그의 삶은 여전히 피폐했다. 야쿠자 시절부터 손을 댔던 마약을 끊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약에 의존하면서 날마다 공허함과 공포심에 짓눌려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에노공원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노방전도 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보였다. 빛나고 성스러운 정도로 환한 그들의 모습과 마약에 찌든 자신의 모습이 대조되었다. 더 깊은 자괴감에 빠졌다. 자신이 한없이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였다. 나쁜 길로 빠진 자신을 예수님이 벌하고 계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극도의 두려움이 느껴졌다. 설상가상, 아버지가 위독하셨다.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는데 어린 시절 다니던 교회가 떠올랐다. 아버지 친구가 하는 교회로 무작정 달려갔다. 교회에 들어서서는 순간부터 그렇게 눈물이 쏟아졌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멈출 재간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상하고 피폐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다.

“저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십니까?”

울면서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예 31:34).

그렇게 예수께로 돌아왔다. 그날이 1993년 3월 14일 주일이었다. 그날 이후 가나자와 목사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주일에배는 기본, 수요일 기도회, 성경공부 등도 참 열심히 했다. 자영업(야키니쿠 가게)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교회에 몽땅 헌금할 정도로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길로 인도하셨다.

“신학교에 가서 전도자가 되거라.”

학력이라곤 고등학교 중퇴가 전부였던 그였기에 신학교에 진학해서 공부하는 것이 남들보다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성경책을 머리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성경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뒤늦게 배움의 길로 들어선 만큼 더 열심히 매진했다. 그렇게 목사가 되었다.

야쿠자 출신 목사답게 그의 교회에는 야쿠

자 출신 성도들이 꽤 있다. 약물중독, 폭주족, 건달 등 하나같이 인상이 험악해 보인다. 그렇다고 그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인 성도들과의 갈등도 없다. 오히려 사랑의 공동체로 소문이 났다고 했다. 그가 교회 두 곳을 개척했는데 그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가 모두 야쿠자 출신에 마약중독자라고 한다. 그의 대답이 허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재생산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으면서 온누리교회에 간곡한 부탁이 있다고 했다.

“일대일 제자양육, 순모임 인도법 등 온누리교회의 훌륭한 양육 프로그램을 일본 교회에 전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까짓 거 한 번 가면 되지 뭐?”

아다치 다카오 목사(오사카시온교회)는 일본 만담 ‘라쿠고’로 설교하는 목사로 유명하다. 특히 잘 웃고, 활기찬 간사이 지방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젊고 조용한 일본 목사들의 설교와 그의 설교는 분위기부터 다르다. 그 때문인지 아다치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 성도들은 활기차고 적극적이다. 그는 라쿠고 설교집을 발간하고, 그 수익금으로 필리핀 태풍피해 지역을 돕는 ‘바나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벌써 두 번째 교사(校舍)를 짓고 있고, 라쿠고 설교로 일본CGNTV에도 출연했다.

처음부터 목사가 되려던 것은 아니었다. 목사가 된다는 비전이나 꿈을 가져 본적도 없다. “장인어른이 목사님인데 아내는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같이 교회까지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 정도예요.”

1995년 한신대지진 이후 평온하기만 하던 그의 생활이 조금 달라졌다. 고베에 살던 처형네 집이 지진으로 파손되면서 그의 집으로 피난을 오게 된 것. 아내와 달리 처형은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한 집에 살게 된 처형이 교회에 가자고 제안해서 아내가 억지로 교회에 가게 되었다. 너무나 오랜만에 간 교회는 자신이 다니던 교회랑은 완전히 달랐다고 한다. 경직된 분위기가 아니었다. 자신보다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보고 도전을 받았다. 그렇게 아내가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됐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그런 아내가 비신자인 남편을 가만둘 리 없었다. 남편을 전도하기 시작했다.

당시 부동산감정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오랜 기간 공부하던 그는 생계에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가장으로서 아내에게 눈치가 보였다. 고생하는 아내의 기분이라도 맞춰주고자 교회 나가는 시늉을 했다.

“하나님 살려 주세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교회에 나가다보니 아는 사람이 생겼고, “다음 주일에 보자”고 인사하는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주 나갈 수밖에 없었다. 물론 예배당 제일 뒤편에 앉아 졸기 일쑤였다. 어중간하게 교회를 다니던 어느 날, 아들이 자전거 체인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응급복합수술을 한 의사는 “손가락이 검게 변하면 절단해야 한다”고 했다.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듣고 난 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하는 방법을 몰랐지만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부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떻게든 손가락을 붙여주세요!”

다음날, 잘 봉합된 아들의 손가락을 보면서 중언부언한 기도였지만 하나님이 진짜로 들어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감격했다. 아들의 손가락이 잘 붙은 것도 기뻐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이 더 기뻐다.

그 사건 이후, 신앙생활이 달라졌다. 아내 눈치 보느라 교회를 다니던 그가 성경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설교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다.

“나처럼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알려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처남(당시 전도사)이 신학교 진학을 권유했다. 곧바로 신학교에 견학을 갔는데 수업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 없었다. 목사가 되겠다는 계획보다 재미있는 신학 이야기를 들으러 신학교에 진학했다. 그렇게 목사가 된 그는 교회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새신자들과 성경 교리에 약한 성도들을 위해 라쿠고 설교를 시작했다. 성경에 친숙하고 재미있게 다가가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아다치 다카오 목사가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꼭 인사를 하고 싶다고 했다.

“우리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주시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계셔서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사카를 영적으로 뜨겁게 달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6 임직예배에서 기도하는 임직자들.

2016 임직예배 ‘희생과 헌신으로’

권사 112명, 안수집사 228명 임직

권사 112명, 안수집사 228명이 새로운 리더십으로 세워졌다. 어제(26일)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드린 2016 임직예배에서 임직대상자 340명이 교회의 직분을 받았다.

2016 임직예배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정파종 장로의 대표기도, 온누리세라핌합창단의

특순, 이재훈 목사의 설교가, 2부에서는 임직자 서약, 안수기도, 선포,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 담임)의 권면, 임직증서 증정 등이 진행됐다. 권옥희 집사가 여자 안수집사, 이병태 집사가 남자 안수집사, 김상남 권사가 권사임직자 대표로 임명장을 받았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주제로 메시지를 선포하며 임직자들에게 “성도들의 형편을 전심으로 돌보는 희생과 헌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영환 집사(송파공동체)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강경희 권사는 “새가족들이 공동체와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 이소정 기자

일본어예배부의 풍성한 12월

4일 KoJaMA집회, 10일 패밀리 크리스마스 집회

일본어예배부가 풍성한 12월을 보낸다. 12월 4일 합동 크리스마스 집회 KoJaMA’를, 12월 10일에는 ‘패밀리 크리스마스’ 집회를 개최한다.

KoJaMA는 한국에 있는 일본어예배부 연합모임이다. 온누리교회, 사랑의교회, 할렐루야교회, 지구촌교회, 오륜교회, 가버나움차펠, 경향교회, 서울일본인교회, 일본비전교회의 일본어예배부 등이 소속되어 있

다. KoJaMA에 소속된 9개 교회 일본어예배부 성도들이 연합하는 합동 크리스마스 집회는 12월 4일 오후 6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경찬홀에서 막 오른다. 12월 10일 열리는 전도집회 ‘패밀리 크리스마스’는 온누리교회 일본어예배부가 주최하는 행사다. 동부 이촌동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교회로 초청해 복음을 전할 예정이다.

문의: 02-3215-3702

하용조 목사, KWMA로부터 감사패 받아

하용조 목사가 선교에 중요한 업적을 남긴 공로로 KWMA(한국세계선교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재훈 담임목사가 대리수상했다. 전주 안디옥 교회(비율선교회) 이동휘 목사, LA 은혜한인교회 김광신 목사도 감사패를 받았다. 감사패 수여식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개최된 ‘2016 한국선교지도자 포럼’에서 거행됐다.

‘Worship In Campus 이화여대’

하늘·허브·폴투공동체 연합집회

지난 17일, 이화여대에서 색다른 기도회가 열렸다. ‘Worship In Campus 이화여대’ 기도회가 바로 그것이다. Worship In Campus는 온누리교회 대학부 하늘, 허브, 폴투공동체가 연합해서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기도회다. 이번에는 최근 여러 가지 이슈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화여대에서 기도회가 개최돼 구성원들에 큰 위로가 되었다. ‘이화기독교학생연합’도 함께 했다.

기도회에서 박대원 목사는 ‘답을

허무는 신비’를 주제로 설교했다. 박 목사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불신의 담을 허무셨다”면서 “크리스천 학생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불신의 담을 허물기 바란다”고 권면했다.

이하람 자매(하늘공동체)는 “오늘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학교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고, 석희진 자매는 “우리 학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양지 맞춤전도집회 ‘행복예감’ 개최

양지 온누리교회가 개최한 맞춤전도집회 ‘행복예감’이 성황리에 막 내렸다. 지난 주일(20일) 양지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된 전도집회에서는 11명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고백했고, 21명이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가고 싶다고 했다.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료의 초청을 받았다는 박혜란 자매는 “내가 정말 귀한 사람으로 여겨졌다”면서 막연하기만 했던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였다”고 말했다.

도육환 목사(양지 온누리교회)는 “이번 전도집회는 양지 온누리교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고 했다.

통일 세미나 ‘북한의 장마당과 사회 변화

11월 30일 오후 2시 양재 기쁨홀

온누리 통일위원회가 주최하는 통일 세미나 ‘북한의 장마당과 사회 변화’가 오는 11월 30일 오후 2시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열린다. 국내 북한 전문가들과 탈북 지식인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통일 세미나 ‘북한의 장마당과 사회 변화’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김병연 교수(서울대)가 ‘북한의 장마당과 사회변화’를 주제로 강의하고, 정은이 교수(경상대)와 김병욱 소장(북한개발연구소)이 토론한다. 2부에서는 정은찬 교수(통일교육원)가 ‘복음화와 통일 가

능성’, 홍민 연구위원(통일연구원)이 ‘북한 시장과 북한 사회의 변화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홍광 대표(NK지식인연대), 김형수 강사(북한중앙당 38호실 근무), 현인애 객원연구위원(통일연구원), 양운철 부원장(세종연구소)이 토론한다.

통일 세미나에는 통일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온누리 통일위원회는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양재 비전홀A에서 ‘살롬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문의: 010-4447-3553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11월 세레자

■서빙고

김강현 850301
조인선 830302
김민지 780629
김재민 830815
이지원 860316
이현 850903
이현숙 530108
조상훈 441108
한지우 791123
홍범식 670129
황진영 900408
유아
고은재 150121
고경환 김순옥
김다엘 150103
김태주 황은진
노유정 151121
노상윤 이지현
박로하 150123

박정환 조정순
박은혁 150822
박완재 이소연
박익하 160207
박진우 조은경
박지원 151105
박선배 나정원
박채윤 150310
박성식 김정은
배은혁 151218
배정현 강주연
안라은 150520
안태현 박민정
윤지후 150512
윤동현 김승민
이세민 150403
이서연 김민영
이예준 150408
이창민 김미진
임재아 150320

임병수 정이라
정유은 150617
정경찬 박세영
조재인 151102
조호기 박아실
최이든 151201
최영우 홍민영
■열린새신자
김평민 751108
유아
홍인희 160304
홍석인 박광희
이승기 151215
이원준 김효진
이승찬 151215
이원준 김효진
■양재
김민경 820721

박현숙 720514
설희정 780308
엄한용 851015
여한구 560424
육동민 561016
우권제 841102
임지민 920119
입교
김영미840719
유아
권사랑 150813
권오영 정인에
김하민 150722
김홍서 서지영
라주안 150825
라용학 배현경
여로아 150130
여종준 장상희
윤승현 150623
윤석권 조유리

이교휘 141003
이현규 홍은주
이유경 141013
이승용 김영미
이준희 150205
이상규 박민경
조승하 150202
조정관 남경민
한지아 150331
한창훈 이소라
■대학청년부
갈렙
한재연 93611
길
입교
박태원 920219
여호수아

김남희 840415
조문근 890203
조홍희 840117
입교
김규리 820311
유아
윤하민 151120
윤성원 양은진
하늘
나경주 960412
입교
박정은 961008
허브
민예빈 970903
김예림A 950125
서상원 910409
입교
김예림B 961030

한유진 950925
CH630
유승환 801031
J4U
곽재은 900807
Pole2
입교
변준영 920917
홍주성 930105
SNS
이민정 911024
전현 800506
한혜승 800925
유아
서다은 160118
서반원 김영

이주민을 위한 선교음악회 ‘Blessing Migrents!’가 지난 13일 경기도 양주시 예향교회에서 개최됐다. ‘열방으로 찬양하며 춤추게 하라’를 주제로 열린 선교음악회에는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스리랑카, 아프리카 등지에서 온 이주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선교음악회에서는 온누리장로합창단, 국악팀 예울림, 양재 여성중창팀 이브투메리가 찬양했다. 8개 국가팀은 전통춤, 워십, 합창을 선보였다. 그 중에서도 힘차고 흥이 넘치는 아프리카팀의 공연이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스리랑카 사역자 윤병희 목사(임마누엘선교교회)는 “8개 민족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했고, 베트남에서 온 이인 형제(송우벗사랑베트남교회)는 “한 영혼을 위한 온누리교회의 관심과 사랑에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고백했다. 열방선교 네트워크 대표 이윤웅 선교사(의정부 태국교회)는 “외롭게 사역하던 이주민들이 하나가 되었다”고 했다.

이주민을 위한 선교음악회는 올해가 3번째다. 2014년 온누리교회 주향한 찬양사역팀이 자비량으로 시작했다.

제1125호 | 2016년 11월 27일(주일)

■ 온비아(Onnuri BEE Academy) 수료 간증



/ 정주영 자매(양재공동체)

우리 주를 힘써 아는 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요 3:30).

나의 믿음은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고,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나도 살아 있어야 한다는 식의 믿음생활을 한 것 같다. 만 4년 동안 반복해서 찾아오는 우울증과 싸웠다. 자기 연민에 빠져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었던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영혼의 어두운 밤 덕분에 얼마나 깊은 어둠이 존재하는지, 사탄 마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알 수 있었다.

16년이란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탄식이 나왔다. 그때 친한 언니가 추천한 성경공부가 바로 ‘온누리 BEE 아카데미’다. 개강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그런데 개강 며칠 전 온비아 본부로부터 전화가 왔다. 신청자가 모자라서 개강 일정을 늦추게 되었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기도해 달라는 전화였다. 폐강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지인들을 설득해 온비아 과정에 등록했다. 그렇게 온비아 과정이 시작됐다. 첫 번째 과목 갈라디아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미 식사해 질 정도로 듣고 말해왔던 구절이라 큰 기대

가 없었는데, 이 구절의 참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은 결코 식상하지 않았다. 두 번째 과목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로 알려져 있는 만큼 어려웠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될 복음의 비밀들이 구석구석 다이나몬드처럼 박혀있었다. 이 두 과목을 통해 사도 바울의 일생을 드라마처럼 훑어보고, 그의 멋진 문체를 읽으며 무릎을 탁! 치던 그 시간 자체가 기쁨이었고, 복이었다.

여름방학에는 BEE에서 주최하는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생애 첫 선교여행이었다. 5일 동안 8개 교회를 돌아보며 나와 같은 교제로 공부하고 있는 베트남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만났다. 퇴근하고 교회에 와서 늦은 밤까지 세미나를 들던 베트남 청년들의 맑은 눈망울이 아직도 뚜렷하다. 과제를 준비하며 시간에 쫓기는 날들이 많았고, 아이 넷을 키우며 온비아 과정을 한다는 것이 사치라고 생각하는 날이 많았는데 반성하게 되었다.

이제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여호와 우리 주를 힘써 아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했다.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 노원공동체 네팔 아웃리치 간증



/ 박진경 성도(노원공동체)

목도(目睹)

네팔 아웃리치를 간다는 소식을 듣고도 큰 감동이 없었다. 2학기 개강예배에서 아웃리치 탐장을 맡으신 집사님께서 이번 아웃리치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번 아웃리치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지난 시간 동안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목도하는 현상이 될 것입니다.”

그 순간 네팔이 내 마음에 들어 왔다. 지난 달 18일 도착한 네팔의 첫인상은 우리나라 70년대 같았다. 선교사님이 계신 꼬혈뿔로 이동했다. 그곳에는 FA선교사들도 있었다. 잠시 학업과 직장을 내려놓고 부모와 친구를 떠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청년들의 모습이 보석처럼 빛났다. 그들에게 시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이곳에 다시 온 이유를 물었더니 네팔 사람들이 보고 싶어서라고 했다. 100년 전 한국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던 이방인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이제야 이해되었다.

아직 완공되지 않아 창문도 없는 꼬혈뿔교회에서 열린 ‘Blessing My Family’ 부흥집회에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다. 그곳에 모인 250여 명이 뜨겁게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했다.

기도를 받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발 디딜 틈 없이 모여들었던 사도행전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한 사람 한 사람 앞으로 나아가 고통스런 가슴위에 손을 얹고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님과 장로님, 아웃리치팀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 정신을 잃고 쓰러진 여인의 알 수 없는 과성과 몸부림을 부여잡고 두려움 없이 기도하는 FA청년들의 모습은 귀신을 쫓던 예수님의 제자들 모습 그대로였다.

선교사 한 명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네팔로 갔다. 그 선교사는 그 땅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복음을 전했다. 허름한 건물 한 층에서 시작된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영혼들에게 주님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 그 빛들이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했다. 그 빛이 모여 기도할 때 주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다.

하나님은 선교사님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계셨다. 네팔 아웃리치를 소개해 주셨던 팀장님 말씀대로 이번 아웃리치에서 Acts29장이 쓰여지고 있는 현장을 목도했다.

■ 44기 젊은부부학교 수료 간증



/ 손진숙 성도(서대문공동체)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결혼 1년차인 우리 부부에게 젊은부부학교가 어떤 도움이 될지 궁금했다. 기대도 되었다. 그런데 남편은 조금 달랐다. 나처럼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았다. 젊은부부학교에서 다양한 강의를 들으면서 가정과 관계에 대해 돌아보고 생각해보았다. 특히 피플퍼즐세미나가 공감이 되었다. 남편에게 정죄의 잣대를 들이대면 가정이 바로 설 수가 없다는 것을 배웠다. 그동안 내 모습을 회개하고 남편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세워지기를 기도했다. 남편을 다루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다. 내 말과 생각이 앞서갈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는 다짐도 했다.

젊은부부학교에서 보낸 1박 2일은 우리 부부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아름다운 자연과 스태프들의 따뜻한 섬김에 마음이 활짝 열렸다. 조장님과 조원들의 나눔과 공감이 너무 감사했다. 남편도 젊은부부학교에 참여하기를 잘했다고 고백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다.

‘자기에로의 여행’ 강의를 들으면서 나의 원가정과 남편의 원가정에 대해 생각해보고

대화했는데 무척 유익했다. 남편의 성장과정과 원가정을 이해하게 되면서 남편을 다했다고 조금하게 생각했던 것이 떠올랐다. 남편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세족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의 결혼생활을 아름답게 해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 마음을 보상해주시는 것 같았다. 사실 결혼하고 하나님을 전처럼 자주 찾지 않았다. 그것이 하나님께 죄송하고, 마음이 불편했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정죄하기보다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들을 선물해주셨다. 그 크신 사랑에 또 한 번 감격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품으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의 가정을 간절히 꿈꾸고 소망했던 나의 마음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계속 배우게 하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주셨다. 내가 했던 기도들도 모두 기억하시고 계셨다. 내가 깨어 있지 못할 때에도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남편과 자녀에게 흘려보내고 싶다.

■ 인천 불가리아 아웃리치 간증



/ 손수진 성도(인천 온누리교회)

기도하겠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짧지 않은 신앙생활을 했지만 기도제목은 늘 나와 가족이 전부였다. 기도의 폭이 넓었으면 좋겠고,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도 품고 싶었다. 가끔 아웃리치나 CGNTV 영상을 볼 때면 내 삶이 너무 부끄러웠다. 아직 아이들도 어리고, 남편이 허락해주지 않고, 내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선교를 망설일 때가 많았다. 10년 정도 중보기도를 하면 선교에 보탬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하나님은 내가 세운 10년쯤이라는 계획을 단 몇 주로 압축해 주셨다.

“선교는 그들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 같다”는 선교사님의 말씀이 지금도 잊히지 않았다. 얼마나 치열하게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지 그 말씀 한마디로 알 수 있었다.

“이런 순종이 가능합니까?” 내 자신에게 수차례 물었다. 선교사님과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다.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이런 곳에 희망이 있나?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은혜를 마구 부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

은 왜 가만히 계시는 걸까? 많이 답답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성도들을 보면서 깨달았다. 주일예배에서 현지 성도들이 찬양하는데 간절함이 느껴졌다. 내 마음도 같이 뜨거워졌다. 목사님이 안수할 때는 초대교회의 장로를 세우는 장면이 생각나 기분이 묘했다. 같이 식사하는 중에 현지 장로님 한분이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다. 서경남 목사님께서 “하락세입니다. 그러나 다시 부흥할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함께 합시다”라고 말하는 장로님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 확고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무엇인가 뜨거운 것이 느껴졌다. 이렇게 뜨거운 믿음을 가진 분들이 불가리아의 부흥을 위해 애쓰고 계셨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불가리아에서 복음 전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불가리아를 섬기고 있는 박서규, 전미란 선교사님과 자녀 종인, 종하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할 것이다.

장로칼럼

찬양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하성기 장로
(온누리장로합창단)

2012년 10월 가을 장로합창단이 탄생했다. ‘어떻게 하면 장로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더 많이 헌신할까’라는 고민이 그 시작이었다. 장로합창단 10원들의 평균 나이가 65세다. 처음에는 악보를 보지 못하는 분도 계셨다. “과연 우리가 합창단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었다. 그렇게 4년이 흘렀다. 이제 어디 내놔도 손색없을 정도로 성장했다. 굉장히 어려운 곡들도 소화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그만큼 수많은 노력을 했다. 가사를 적은 손바닥만 한 종이를 매일같이 들고 다니며 외웠다. 그 과정을 보낸 장로님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악보도 볼 줄 모르는데 이상하게 합창이 돼. 나이 들어도 합창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장로합창단 10원 모두가 신기해한다. 물론 우리가 합창을 할 수 있도록 헌신하신 남윤창 지휘자와 윤정희 반주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들에게 늘 고마울 따름이다.

교도소, 군대, 지역교회 등에서 합창을 할 때마다 받는 은혜를 말로 다할 수 없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곳이 논산 진중세례식이다. 자식 혹은 손자 같은 청년들이 3천여 명 모여 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축복하면 마음 깊은데서 감동이 밀려왔다.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모른다. 논산 진중세례식에 가려면 연

습시간을 포함해서 꽤 많은 시간을 내야 한다. 그럼에도 장로합창단 10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참석한다. 장병들을 찬양으로 위로하고 축복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교도소에서 부른 찬양은 재소자들을 눈물 짓게 만들었다. 또 이전 설성 감리교회에서 개최한 연주회에도 참석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했다. 그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놀라웠다. 이것이야말로 찬양을 통해 가르치고, 천국복음을 전파하고, 고치는(마 4:23)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욱 감사한 것은 장로합창단을 통하여 장로들이 하나 됐다는 것이다. 서로 알아가면서 각자가 맡고 있는 사역을 나누는 장이 되었다. 그 결과 서로 연합해서 많은 융합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로합창단 10원으로서, 장로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로합창단 제4회 정기연주회가 12월 3일 토요일 오후 7시 양재 사랑홀에서 열린다.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이다. 올해 표어가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인 것처럼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전하고, 바로 보자는 의미다. 1부는 온사랑합창단, 온누리교회지향합창단, 도곡챔버팀이 무대를 장식하고, 2부에는 온누리장로합창단이 등장한다. 이번 정기연주회의 클라이맥스는 드라마와 승전가다. 장광 장로가 재판관을 맡고 두 증인이 나와 “2천 년 전 예수님의 재판은 불법!”이라고 기소하는 내용의 드라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은혜 받고 장로들을 격려해주셨으면 좋겠다. 격려와 축복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 같다. 그 격려에 힘입어 교회를 위해 더욱 기도하고, 섬기는 일에도 더욱 헌신할 것이다.

권사칼럼

익숙한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



김희권 권사
(서빙고공동체)

나는 4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불신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자랐다. 다른 사람들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 힘들게 교회 다니는 것은 나와 거리가 먼 이야기였다. 나에게 교회는 당연히 가야 되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혹여 안가고 싶어도 안가면 죄책감이 들어서 안 갈 수가 없었다. 내가 신앙을 지켜나가기 보다 이미 지켜져 온 신앙 속에서 살았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는 말씀이 당연하게 믿어졌다. 주위에서도 믿음의 가문을 이룬 것을 부러워했다. “자손들이 선조들의 기도 덕에 사는 거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런 것이라고 여겼다. 기도가 쌓여있기에 우리 집은 평강하게 잘 될 것이라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였을까. 어느 순간부터 구원이 거저 받은 주님의 선물임에도 나는 특별히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한 동안 선민의식과 매너리즘에 빠져있었다. 겸손을 가장한 교만은 기복신앙과 같았다. 그런 내가 결혼하면서 익숙한 하나님이 아닌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됐다. 자식들을 유학 보내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기도가 깊어지면서 역시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내가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나 또한 하나

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됐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았다.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 느껴졌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내 신앙이라기보다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권사직을 권면 받았을 때도 부담스러웠다. 그러나 권사임직을 위한 훈련을 받으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내 인생에서 꼭 필요했던 시간들이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나의 신앙을 깨뜨리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셨다. 막연했던 나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으로 명확해졌다. 하나님이 새롭게 다가왔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 마음에 만지셨다. 때때로 늦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뜨거운 신앙을 보면서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렸는데 권사임직 훈련을 받으면서 완전히 회복되었다.

“아굽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사 43:1).

그 중에서도 OBC 강의는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도록 했다. 하나님의 성품도 깨달았다. 하나님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시고, 그 분이 내 아버지이심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내 삶의 문제보다 훨씬 큰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늘 부족하지만 겸손함으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려 한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명심하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임하고 싶다. 나의 인생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고 통치하여 주시는 주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사랑한다.

신앙에세이



최성민 목사
(허브공동체)

온누리교회 대학부가 캠퍼스 맞춤형 전도집회 ‘희망노트’를 시작하면서 꿈꾸는 세 가지 비전이 있다.

첫째, 캠퍼스에 있는 크리스천 대학생들이 당당하게 “Yes, I am a Christian(예,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자. 둘째, 넌크리스천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오해를 풀자. 셋째, 캠퍼스 속에서 교회로 살아가자이다.

그렇게 시작한 희망노트는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있다. 그만큼 이 시대 대학생들의 자화상이 밝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크리스천 대학생들의 영향력이 약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씩씩한 마음이 크지만 더 열심히 달려가야겠다는 도전을 받는다.

희망노트 집회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사랑과 어떻게 다른지를 이야기한다.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다. 예뻐서, 돈이 많아서, 성격이 좋아서 등 여러 가지 조건



캠퍼스 맞춤형전도집회 ‘희망노트’.

과 이유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도 이유도 없다. 못 생겨도, 돈이 없어도, 성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 하나님은 조건을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존재

를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놀라운 사실은 크리스천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대학생들에게 들려주면 그들이 눈물 흘리며 마음을 연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에 담혀 있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대학생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시대 대학생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

왜 그럴까?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 희망노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지난 10~11월 호서대학교에서 있었던 희망노트에서 나눈 내용도 바로 이것이다.

성경을 두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한다’와 예수님의 ‘사랑해라’이다. 이 두 메시지가 우리 삶에 적용될 때 세상에서 찾지 못했던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 청년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단순하다.

이 시대에 희망이 없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가?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켜보자. 이 복잡한 시대에서 행복을 찾는 법은 의외로 쉽다.

“사랑한다. 그리고 사랑해라.”

인생의 희망노트에 사랑한다와 사랑해라가 적혀 있다면 정말 행복하고 재미있는 일이 생길 것이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마틴 루터 킹 2세가 죽기 전날 밤 이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저도 오래 살고 싶습니다. 장수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할 따름입니다. 그분은 제가 산에 오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바라보았고, 약속의 땅을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거기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밤 저는 행복합니다.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담대함과 행복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감사에서 온 것입니다. 감사에서 나온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염려를 감사로 대체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평강은 수비대가 성을 포위하고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의 성이 얼마나 연합입니까. 한마디 말로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우리 마음의 성만큼 연합한 것이 없습니다. 눈빛 하나, 표정 하나, 말 한마디, 단어 하나에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성은 보호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성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에서 옵니까. 감사의 마음으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고해서 상황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변화될 수도 있고,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분별력을 가

지고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판단력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수능 시험을 앞둔 학생이 시험 때문에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 학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염려하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강이 임했습니다. 그렇지만 공부하지 않으면 성적은 좋을 수 없습니다. 평강은 내 앞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의 보호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의 모든 유혹과 염려를 넘어서 수 있는 힘입니다. 잠수함을 타본 적이 있습니다. 잠수함이 수압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는 수심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잠수함 바닥에 있는 유리를 통해서 보니까 더 밑쪽에 물고기들이 보였습니다. 철갑으로 된 잠수함도 못 버티는 수압을 견디는 물고기들입니다. 그 물고기들이 수압을 어떻게 견딜까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수압을 견딜 수 있는 압력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잠수함도 견디지 못하는 수압을 견딜 수 있는 내면의 압력이 물고기에게 있다는 것이 신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내면의 압력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내공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내면의 압력이 충만해야 외부의 압력과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

어떻게 하면 평강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배운 대로 계속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무엇이든지 진실하고 무엇이든

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의롭고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일이 있다면 거기에 무슨 덕이나 무슨 기쁨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8-9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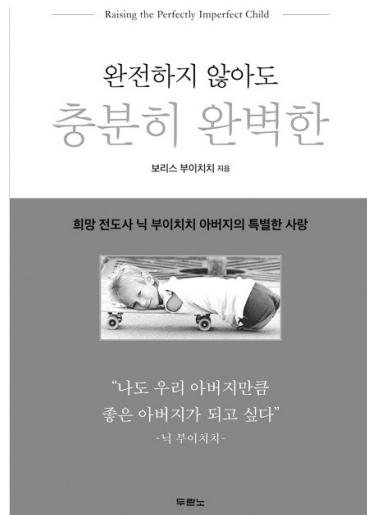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그 다음 행할 것은 진실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할 만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계속 임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는 성령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성령님의 역사와 열매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갈등이라도 관용으로 변화시키고, 염려를 감사로 변화시킬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이 기쁨과 평강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삶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옵소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어둡고,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힌 백성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에 감사하지 않을 때 영혼이 어두워지고, 교만해지고, 다투고 분열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영혼이 밝아지고 분별력 있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갈등을 관용으로 변화시키고, 염려를 감사로 변화시킴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두란노 신간

닉 부이치치의 아버지 이름으로



〈완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완벽한〉
보리스 부이치치 저 | 두란노 |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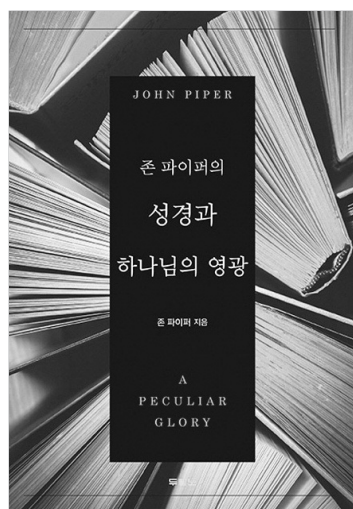
이 책은 장애인이나 몸과 마음이 아픈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서 흔히 겪게 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 책 한 권 읽는 것만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다.

닉 부이치치는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닉 부이치치는 포기하지 않았다. 수많은 난관과 편견을 이겨내고, 연설가로 또 희망전도사로 전 세계를 누비고 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산증인이 되었다. 그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부모의 헌신이 숨어있다.

이 책의 저자 닉 부이치치의 아버지는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고 고백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온 큰 시련에 절망한 적도 있다고 했다. ‘과연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진 과정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이었다.

“닉이 불완전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 아이를 바라보는 내 시각이 흠투성이였다. 닉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는 하나님께 완벽하게 지음 받은 존재다.”

하나님 영광 찾아 떠나는 성경여행



〈존 파이퍼의 성경과 하나님의 영광〉
존 파이퍼 저 | 두란노 | 20,000원

백도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과 마주하는 축복된 삶을 살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존 파이퍼 목사가 신앙 성숙에 큰 도움이 되는 책을 펴냈다. 〈존 파이퍼의 성경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의 책에 성경의 진리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증들을 담았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대한 깊은 묵상도 가득하다. 변증학, 교회사, 서정시까지 하나님을 잘 알게 하는 지식을 총망라했다.

“성경의 큰 선물 중 하나는 성경이 우리에게 사고의 범주들을 만들어주어 더 많은 진리를 이해하게 한다는 것이다. 성경 밖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방식에는 우리가 보고 알아야 할 것들이 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 많이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은 그분의 말씀 속에서 빛이 난다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 존 파이퍼 목사가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 떠나는 성경여행으로 독자들을 초대하고 있다. “성경의 포로가 된 삶이야말로 가장 기쁜 삶”이라는 그의 고백도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과 마주하는 축복된 삶을 살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일본어통역 지원)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시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손정훈 목사

시간: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김국중 팀장(010-8885-6757)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하태일 팀장(010-3798-3148)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 (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분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Onnuri hall

캄보디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Peace 302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2

몽골어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1

네팔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3

열방 예배 09:00/11:00 안산M센터 Manna hall

태국 예배 14:00 안산M센터 Peace 303

스리랑카 예배 11:30 안산M센터 Peace 304

베트남 예배 11:00 안산M센터 Peace 305

필리핀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1

다문화 예뵂 10:30 안산M센터 Dream Kids Room

다문화 꿈팍 11:00 안산M센터 StarTree

다문화과워워브 14:00 안산M센터 StarTree

서빙고

몽골어예배 14:00 선교관 401호

러시아예배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예배 14:00 분관 B102호

매월 첫째주 선교관 402호

다문화꿈팍예배 15:00 선교관 403호

인턴 몽골어 예배 13:0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분관 B102호

문의: 공자정 집사(010-5101-4613)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 10시30분~12시30분

-서틀운행(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서빙고 목요어머니 기도회

시간: 목요일 10시 30분 / 누리홀

문의: 안민경 간사(02-3215-3523)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셋째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세라 선교사(010-4029-7601)

2017 살롬 예루살렘 대회 참가자 모집

일시: 2017년 5월 27일~6월 4일

장소: 예루살렘 하이파

문의: 02-792-7076, 010-7927-7075

*자세한 사항은 kibi.or.kr 확인

통근통독 3일 집중과정

일시: 11월 28일~11월 30일(10:00~17:30)

내용: 성경 일독을 위한 구속사적 관점의
가이드 라인 제시

대상: 성경 일독을 하기 원하시는 분, 성경
일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강사: 주해홍(두란노 통근통독 저자)

회비: 11만원(중식제공, 교재 개별 구매)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EM홀

CMN라파팀 외국인진료 봉사자 모집

서빙고: 의사(네팔주일 오후 4시~6시)

간호사(셋째주일 오후 4시~6시)

안산M센터: 의사, 간호사

(셋째주일 오후 2시~5시)

문의: 심형섭 팀장(010-3227-9915)

'가스펠 프로젝트' 어린이 성어 모집

대상: 초등학교 3~5학년

서류: 자기 소개서(200자 내외, 연락처

표시), 자유곡 녹음 파일

접수: durannobsc@nate.com

기한: 12월 5일 오후 5시까지

문의: 2078-3437(두란노서원 BS교재팀)

온누리NGO 더멋진세상 국책사업회계

담당자 모집

분야: 본부행정 국책사업 회계 담당자

근무지: 서울

우대: 영어가능자, 관련 경험자

자격: NGO 국가정책사업 회계 경험자

선교에 대해 열정이 있는 자

모집: 12월 8일까지, 이메일로 서류접수

제출: stkim@abetterworld.or.kr

문의: 김순태 코디(02-2271-2246)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0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Rock 5세 ~ 초등1(충성홀 11:30)

Jesus Crew 초등2 ~ 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 ~ 고등 (충성홀 9:00)

도곡교육관 주일 9:00 예배

성인예배: 사랑을 (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한국어)

영아부: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11: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영어)

Hope Zone(Newborn~Age4)

: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Joy Zone(Grades3~6)

: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Middle School Group(Grades7~8)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High School Group(Grades9~12)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오후1:30)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렘청년부예배: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최재호 전도사(010-4336-3528)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3912-939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목상의집(WIN) 주일예배

일시: 매 주일 10시 남한산성 목상의집

*서틀운행(010-8870-9313)

-양재역10번출구 9:00 출발(던킨도너츠)

-북정역 2번출구 9:20 출발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배수연 간사(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양재 목요어머니기도회

목요일 10시 30분 / JDS홀

문의: 이현주 간사(02-570-7553)

도곡 어머니기도회

KNOCK

미니콘

두근두근 마카롱

크리스천 청년들의 연애와 결혼이 궁금하다!!
 톡톡 튀는 청춘들의 신앙 공감 이야기, KNOCK 미니 시트콤

1화 10년차 커플의 상견례 하던 날~!

2화 생일선물로 소개팅을, Happy Miracle Day~!

3화 신 시택학개론, SNS 시집살이

4화 “우리 같이 교회 가자!” 메리 크리스마스

12월 3일, 10일, 17일, 24일
 매주 토요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페이스북(www.facebook.com) 또는 유튜브(www.youtube.com)에서 'KNOCK 노크'를 검색하시면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